

資本(實物)概念에 관한 省察

李 冕 錫*

目 次

- | | |
|---------------|-----------------|
| 1. 擴大再生産과 資本 | 3. 資金循環表上的 資金源泉 |
| 2. 資本形成과 그 資本 | 4. 結 言 |

1. 擴大再生産과 資本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經濟의 成長이라 일컬을 때는 國民總生産(GNP)의 增加를 뜻하는 것이 된다. 國民經濟의 擴大再生産 또한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 과연 국민경제의 擴大再生産을 가져오는 鍵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國民所得의 概念에서 볼때 所得 즉 生産은 한 期間의 財貨의 產出과 그를 위한 使用者費用 및 要素費用의 加減의 過程인 財貨의 흐름(flow)속에서 可處分部分을 集計한 價額인 만큼 一定期間의 所得의 總價額자체가 곧 다음 期間의 所得을(增減 어느 쪽이던)齎來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즉 다음 期間에 GNP가 擴大再生産의 結果로 前期에 比하여 增加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GNP의 증가를 가져오는 根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生産의 原理에서 말하여 그것은 生産의 資源이요 原料요 技術이요 또는 資本일 것이다. 古典學派에서는 이른바 生産의 三大要素라하여 勞動과 土地와 資本을 들고 있다. 사람이 資本을 갖고 土地에다 作用하여 生産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單純히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上述한바 擴大再生産의 結果로 GNP가 增加하는 경우에 이들 三要素中 무엇이 基幹이 되어 生産은 는다는 말인가? 勞動이나 土地는 文字 그대로 따지는 한 期間分析에 있어 顯著하게 느는 것은 아니다.

결국 資本이 作用하여 GNP를 늘리는 基幹이 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¹⁾. 즉 資本이 勞動에 附加되어 勞動生産의 技術의 또는 量的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資本이 土地에 作用하여 資源을 늘리고 改良하고 그 收穫을 늘리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生産의 鍵鑰이 되는 資本이란 大體 무엇인가? 通俗的으로 말하여 資本은 「生産手段」이다. 그러나 여기서 「生産手段」을 廣義로 해석한다고 하면 資本外에 勞動과 土地²⁾도 生産手段이 아닐 수 없다. 한편 資本을 狹意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古典學派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生産 過程에 投入됨으로써 利潤을 낳는 生産手段」이라고 命名할 수 있다.

* 東國大學校 經營大學 講師

1) J.E. Meade: Neo-classical Theory of Economic Growth, 1962, p. 29.

2) 여기서 土地를 生産手段으로 보는 限 資本(狹意)과 區別하기 爲하여 土地가 內包하는 資源 특히 人爲的으로 增加시킬 수 없는 地下資源 따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貨幣(돈)나 有價證券 또는 預金證券와 같이 一般的으로 金融資產이라고 불리우는 實物的이 아닌 生産手段도 資本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인가?

窮極의으로 生産에 影響을 준다는 金融資產의 機能에서 보면 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事業을 하고 資金이 있어야 돈을 벌고 云云하는 따위로 資本을 풀이한다면 그렇게 納得도 간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資本이 勞動에 附加되고 資本이 土地에 作用하여 云云할 때 資本을 곧 資金(fund) 또는 돈으로 代置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點을 明白히 하여야 하겠다.

부연하면 資金이나 돈이 直接的으로 勞動과 土地에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資金과 돈이 購買하여 處分케하는 具體的인 財貨나 서비스로서의 實物的인 生産力이야 말로 GNP를 늘리는 鍵鑰이 된다는 뜻이다. 資本은 물론 GNP의 하나의 構成要素로서 支出國民所得의 分介(component or parts)가 되는 동시에 國民經濟가 歷史的으로 오랜 時日을 거쳐 지니고 있는 累積된資本에 追加된다. 이 追加된 資本과 累積된 資本(capital stock)이 上述한바 勞動과 土地에 作用하여 國民所得으로서의 財貨를 具體的으로 產出하고 그것이 消費되고 또 期間中에 蓄積(accumulate)도 되는 過程에서 다음 期로 移越되는 實物이 바로 Stock로서의 實物資本(Capital in Realterm)인 것이다. 實物資本이 아니면서 財貨의 購買力으로서 機能하는 資金이나 돈 또는 nearmoney로서의 金融資產도 물론 移越되어 온다. 廣義의 資本이 移越되어 온다고 俗稱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貨幣價值가 不變이거나 甚히 減價되지 않을 때에는 實感할 수 있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移越의 實効는 殆無하다.

그리고보면 冒頭로 돌아갈 國民經濟의 成長내지는 擴大再生産의 結果로 GNP를 늘리는 根源은 이렇게 흐름(flow)으로서의 國民所得中에서도 生産要素에 作用하여 다음 期の 所得을 낳는데 이바지하는 具體的인 實物資本의 形成에 있는 것이다³⁾. 물론 今期の 所得中에서 資本形成으로 남는 實物概念의 이 投資=貯蓄은 每期에 걸쳐 累積되어온 歷史的인 資本蓄積總量에 追加로 되어 $Y_{t+1}=f(K_{t-1}+\Delta K_t)$ 가 뜻하는 바와 같이 다음期の GNP를 齊來할 것인데 이 다음 期の 所得이 또한 消費와 貯蓄으로 分介되어 ΔK_{t+1} 를 남기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 ΔK_{t+1} 이 企圖된 貯蓄에 의한 企圖된 投資=資本形成을 꼭 가져올 것인가의 與否는 投資行爲 自體가 지니는 技術的인 條件이나 이미 歷史的으로 蓄積된 資本의 多寡에 달려 있음은 投資와 貯蓄의 均衡을 舉論하는 現代經濟學理論에서의 核心課題로 되어 있는 바이다⁴⁾. 그러나 主題上 이러한 經濟成長 과정에서의 不安定性問題는 여기서는 言及 안하기로 하고 오직 實物資本形式으로서의 投資가 國民所得을 낳고 國民所得 또한 實物資本形成을 위하여 現實的인 投資行爲에 影響을 끼치게 된다는 點을 좀 부연하려고 한다. 즉 資本形成을 이룩하는 現實的인 投資行爲는 그 自體前期의 國民所得의 絕對額과 貯蓄性向에 依存할 뿐 아니라 그 社會가 갖는 國富내지는 資源總量과도 關聯을 갖게 되는데 大體로 보아 이들의 相關關係는 資本形成을 爲한 現實的인 投資水準에 積極내지는 消極의 두가지 範疇로 나누어 볼 수 있는 作用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G. Ackley가 今期の 投資가 前期의 所得에서의 投資性向 α 에는 積極的으로 依存할 뿐 아니라, 한편에서 歷史的인 累積資本의 總量에는 消極的으로 依存하게 되는 것이라 하여 이 關係를 $i_t = \alpha Y_{t-1} -$

3) F. v. Hayek, The Pure Theory of Capital, 1962, pp.29-40.

4) D. Hamberg: Economic Growth and Instability; 1956, chap. 2.

βK_{t-1} 로 나타내고 있음도 이들 論理를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⁵⁾. 여기서 물론 i_t 는 窮極的으로는 ΔK_t 를 뜻하게 되는 것이며 今期의 所得을 Y_t 로 놓는다면 i_t 나 ΔK 가 다음 期($t+1$)의 記號를 갖게 될 것이며 다음 期의 所得 Y_{t+1} 은 今期의 投資=資本形成額과 今期初(前期末)까지의 資本蓄積의 歷史的인 總量과의 合計에 依存하게 된다는 理致와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所得의 增加分 ΔY 를 投資乘數를 介在시켜 投資=資本形成의 增加額에 依存한다고 定式化한 것이 케인즈流의 乘數理論임은 知悉하는 바이다.

2. 資本形成과 그 資源

위에서 우리는 흐름으로서의 國民所得을 낳는 國庫의 資源이 資本蓄積의 歷史的인 總量에 있는 것이라 하고 그것이 어디까지나 實物的인 概念의 資源이요 原料요 技術인 것이라 고 略述한바 있다.

그러나 이 實物的인 概念을 國民所得에서의 資本形成의 內譯에 副應하여 보다 詳細히 摘記하기로 하면 그것은 生産되고 또 다음 期의 擴大再生産에 必要한 建物, 施設, 機械器具 및 原料나 半製品인 것이다. 그리고 技術要素는 말하자면 이들 實物資本에 體化(embody)된 性能으로서의 生産力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돌이켜 이들 實物資本을 形態別로 나누어 본다면, 生産을 目的으로 設置된 建物이나, 機械, 또는 營造物 등의 固定資本이 있을 것이고, 運營資本形態로 갖는 在庫諸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在庫品은 原料에서부터 半製品, 完製品 또는 用途別로 보아 半用財, 最終需要財, 原資財 등등으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나 重要的 것은 通俗的인 資本概念의 돈이나 預金 기타 金融資產—國公債株式等 諸證券은 여기서 捨象되어 있다는 點이다.

즉 이들 金融資產들은 對物請求權으로서 財貨의 購入이나 移動에는 그 機能을 발휘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行爲 自體가 具體的인 財貨를 낳아 國民의 實物的인需要를 채울 수 없다는 點에서 主題인 資本概念에서 除外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金融資產은 nearmoney로서 國民經濟活動에 있어 財貨生産에 必要한 購買力이 되고 資金이 되어 生産에 參加하고 그것으로 因하여 資本利潤도 낳고 國民分配所得의 分介에서 보면 利子와 配當 기타의 收益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單只 여기서 分明히 해 두어야 할 것은 資本利潤아닌 利子나 配當을 얻는다고 하여서 이들 資金을 實物 資本아닌 것으로 分類하여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實物資本 또한 K. Wicksell 流로 解釋하면 自然利子 또는 實物利子を 가져오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重要的 것은 實物資本으로서의 資本形成을 云謂함에 있어 利子나 配當을 그 屬性으로 하는 限 그것은 國民投資資源으로서의 金融貯蓄行爲面을 따져서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投資資源으로서의 金融貯蓄이 一旦 投資化한 결과 生産活動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財貨와 그 果實은 投資=資本形成의 屬性으로서의 利潤이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즉 利潤은 貯蓄된 金融資產의 投資(investieren) 즉 돈이나 nearmoney의 實物에의 轉換에 의하여만이 發生하는 것이고 이 利潤을 要素費用으로 나누는 것이 利子요 配當이요 또 企業者所得인 것이다.

5) G. Ackley: Macroeconomic Theory, 1961, pp. 503—4.

6) K. Wicksell: Geldzins. 1898 및 W. Kraus: Wirtschaftswachstum und Gleichgewicht, 1955, Teil I.

D. Ricardo가 일찌기 利子(利子)는 利潤에 左右되지만 그 反對는 決코 成立되지 않는다고 喝破한바 바로 여기에 그 眞意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⁷⁾. 즉 利潤의 多寡는 利子の 高低를 左右하지만 利子が 높다고 해서 반드시 投資活動의 果實인 利潤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터이다.

要컨대 主題의 實物資本은 擴大再生産의 結果로서 GNP의 증가의 根源이 되는 資本形成으로서의 國民投資額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投資의 資源으로서의 金融貯蓄은 그것이 實物이건 實物아닌 金融資産概念의 資金이나 돈이건 實物資本形成의 分介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點 f. Hicks가 區分한바 fundist로서의 古典學派나 F. Hayek R. Harrod 등이 暗暗裏에 내세웠던 會計學的인 概念의 貸邊負債로서의 資本——얼마의 資本이면 얼마의 產出量을 낳는다는 식의 foward-looking인 資本係數追究의 資本概念이 아니라 우리의 立場은 어디까지나 backward looking으로서 歷史적으로 累積된 實物資本財과 그것에 體化되어 있는 技術이 人力을 빌어 얼마만큼의 產出量을 가져올 것인가하는 이룰데면 Douglas流의 生産函數를 念頭에 두고 있는 것이다. Hicks는 이러한 立論에는 Marshall Pigou 등 新古典學派를 頂點으로하는 Materialist, L. Walras, J. B Clark, J. M Kynes나 M. Solow 등도 加勢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資本價値의 貨幣的인 表現을 일수로하는 上記 fundist와는 달리 이들을 物量爲主의 Materialist라고 區分取扱하고 있다. 즉 이들에 있어서는 資本이 實物이건 貨幣이건간에 그 計測이나 機能이 問題가 아니고 資本이 갖는 生産性, 그것의 物質的인 潜在力이나 轉換性이 強調될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事情을 一例로 國民經濟計算의 하나인 國民貸借對照表에서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國民의 生産活動에 있어 資金 및 資源으로 活用할 貸邊의 總計에 對應하는 것이 國民이 갖는 實物的인 資本(財貨)과 金融資産의 合計인 借邊인 것인데 여기서 注目할 것은 貸邊의 金融負債는 그것이 對內的으로 調達된 것이건 或은 一部가 對外的으로 起債해온 것이건 間에 債券에는 반드시 相應하는 債權이 發生할 것이므로 비록 小科目은 달라도 이들 貸借邊의 兩科目 總計는 恒等하다고 접어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實物概念의 資本이

國民貸借對照表

借	邊	貸	邊
國民資本	100	金融資産	30
金融負債	30	★國民資源	100 { 期初 80 期中增加 20
實財外資産	130	負債外總資本	130

★貸邊의 國民投資資源은 國富를 뜻하지 않는다. 國富는 地下資源까지도 評價計上하게 되지만 資投形成의 資源은 借邊의 資本과 對偶로 되는 개념에 不過하다.

7) D. Ricardo: 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chap. 21.

8) J. Hicks: Perspectives on Twentieth Century Economic Theory — Capital Controversies, The American. E. Review. May. 1974 pp. 307~16.

나 資源에 있어서도 對應하는 價額은 貸借兩邊에 있어 恒等하지만 國民經濟의 活動의 目的이 擴大再生産에 있는 만큼 그 內譯인 小科目에 있어서는 兩邊에 差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 小科目의 差異가 곧 擴大再生産의 結果도 되고 根源이기도 하는 每期의 새로운 投資額資本形成을 나타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上掲表에서 貸邊의 國民資源中 期中의 增額을 나타내는 20이 바로 그러한 뜻의 새로운 資本形成部分인 것이다.

對照表上 물론 그 對應 小科目은 借邊의 國民資本속의 特定한 固定資產이나 在庫品으로 分介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留意할 것은 이러한 分介의 內譯보다 借邊의 國民資本(財貨)이 期初에 投入한 國民資源을 超過하여 새로운 果實로서 資本財를 남겨하였고 그것이 歷史的인 資本累計額에 追加되어 兩邊이 恒等하게 되어있다는 그 點이다. 그리하여 期末의 國民貸借對照表에서 이 追加財貨가 歷史的인 累積資本과 合勢하여 다음 期の 生産活動을 위한 期初資產總額으로 反轉하는데 國民資本總額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國民經濟計算의 또 다른 形態인 國民支出所得에서 投資貯蓄으로 풀이되는 바 새로운 資本形成으로 分介되는 部分이 바로 이 國民貸借對照表상의 追加財貨인 것이며 歷史的인 累積資本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追加資本으로 取扱되는 實物量인 것이다. 貸邊의 國民資源을 歷史的인 資本蓄積의 全額으로 보는데는 每期에 거듭하여 이러한 새로운 追加資本部分이 쌓여서 國民總資源이 이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고 한편 또 借邊에 있어서는 이러한 國民總資源에 의한 投資活動의 과정에서 投資原價를 超過하는 새로운 財貨의 產出部分이 이른바 純投資 내지는 正의 投資로서 實財產의 歷史的인 現在量에 追加되어가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會計學的인 分介로 貸邊을 資本, 借邊을 資產으로 나누는 單純한 處理와는 거리가 먼 浦리라하겠다. 그러기에 또 여기서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 貸邊의 實物概念인 國民資源에 더하여 金融負債마저도 借邊에서의 國民資本實財를 形成하는 投資資源이 되는 限에서 廣義의 資源貯蓄額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롭게 形成되는 追加資源으로서의 實財는 이러한 投資活動에서 얻어지는 國民資本의 利潤이 國民計定自體로 歸屬되는 것이라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投資資源으로서의 金融負債에 대하여도 그것이 貨幣的인 流通을 하는 限 利子나 配當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借邊의 金融資產의 一部를 形成하여 金融負債와 恒等케 하는 對應部分이 되어 負債計定속에서 分介되어야 함은 國民資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貨幣的인 資源에 대한 利子나 配當形式의 果實에 不過하다는 點에서 利潤의 歸屬으로서의 實物資本의 새로운 形成 또는 追加資源으로서의 實財와는 區分取扱되어야 할 것이다⁹⁾.

3. 資金循環表上的 資金源泉

投資=實物資本形成과 區別되는 對物請求權으로서의 돈이나 資金 기타 nearmoney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意圖에서 作成된 것이 이른바 資金循環表(flow of funds table)이다 즉 다음의 例示와 같이 國民經濟計算의 一翼으로서 作成되는 이 循環表는 資金授受의 主體別로 하여 金融部門을 비롯한 法人企業, 家計, 政府 및 海外的 各 部門으로 資金의 貸借(원천과 운용)를 나누어 보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資金의 種類別로 행으로 나누어 類別資金의 主體別投入·產出의 흐름을 짚어 볼 수 있게 하였다. 非金融計定과 金融計定으로 大分類한 各

9) R. M. Solow: Capital Theory and the Rate of Return, 1964, pp. 13~17.

項目(小計定)의 屬性을 따져보면 這般의 事情을 알 수 있다. 즉 金融計定 속의 가령 金融 預金項目에서 보면 그것이 金融計定 속에 들어 있다는 자체가 實物 資本아닌 金融資產形態로 있으며 主體別로는 가령 法人企業의 경우에서 보면 貸借 兩邊을 비교할 때 大部分의 產業社會에서는 運用액이 원천액보다 크다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이것은 法人企業部門이 經濟活動을 벌립에 있어 大體로 資金을 外部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룰때면 法人企業 자체가 助成한 事業저축을 넘는 事後投資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大部分의 경우 資金調達の 源泉은 家計部門이나 海外部門이 되는 것인데 이제 家計部門을 예로하여 보면 이 部門에서는 相對的으로 貯蓄을 많이 하는 代身 投資에 있어서는 自己家屋을 築造하는 경우 外에는 實物資本形成을 別로 하지 않고 남은 貯蓄이 直接(證券市場) 間接(金融기관)으로 法人企業으로 資本移轉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家計貯蓄이 法人企業으로 移轉되는 代價로 家計部門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 證券이요(直接金融) 預金證書(間接金融)인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期初의 이들 金融資產이 期中의 國民經濟活動을 거쳐 經濟가 擴大再生産을 지속하는 限 계속 늘게 마련인 것이나, 어느 時期에 가서는 金融計定總體로서의 貸借 즉 資金의 원천과 運用의 價額은 恒等

資 金 循 環 表: 저축, 투자 및 금융거래

비	금	용	계	정	금융부문	정부부문	법인기업
	저			축	운용 원천		
	투			자			
	과	부		족	가 계	해 외	총 액
	(경 상 잉 여)						운용 원천
금	용	계	정				
	과	부		족			
★통				화	★통 화 { 國金통화 에금통화 }	★★유가증권	{ 國 債 公 債 政 府 公 債 社 債 · 株 式 }
	저	축	성	예 금			
	보	험	신	탁			
★★유	가	증	권		★★★은행대출 차입 { 中 央 銀 行 일 般 銀 行 보 험 신 탁 銀 行 우 편 저 금 }		
★★★은	행	대	출 · 차입				
	정	부	투	용 자			
	기	업	신	용			
	대	외	채	권 채무			

하게 되리라는 點은 國民貸借對照表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同上 例示에서 보는 非 金融計定の 경우는 部門別로 따질 때 반드시 主體別로 兩邊이 恒等하지는 않다.

이 말은 비록 計定總殘은 數字의으로 恒等하더라도 一例로 上述한 바 法人企業의 投資活動이 언제나 貯蓄을 넘는 傾向이 있는 바로 그 事實 즉 GNP 造出의 主役을 하게 되는 法人企業으로 말하면 언제나 資金을 外部로부터 調達해와야 하는 關係로 小科目인 經常剩餘에 있어 負를 示現하는 꼴이 되는데 이 經常剩餘에서의 負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金融計定에서의 家計나 海外部門인 것이다.

이제 說明을 돕기 위하여 實物資本形成으로서의 投資와 이의 資源으로서의 貯蓄의 罅(gap)이 法人企業 및 家計의 兩 主體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實物 및 金融去來面에서의 反應을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投資와 貯蓄의 概念이 끼치는 去來面의 狀況¹⁰⁾

實物去來

金融去來

<法人企業>

投資>貯蓄

金融資產增<金融負債增

<家計>

投資<貯蓄

金融資產增>金融負債增

.....

.....

<國民經濟全體>

投資=貯蓄

金融資產增=金融負債增

즉 國民經濟에 있어 生産의 主役을하는 法人企業側이 實物去來面에서 投資=資本形成에 必要한 貯蓄이 不足할 경우에는 家計의 金融資產을 移轉받아 그 資源으로서 家計其他部門이 購買할 수 있는 實物財貨를 購得하여 投資로 轉換하게 될 것인바 法人企業部門 自體의 金融負債는 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部門 相互間의 이러한 貸借은 國民經濟全體로는 恒等하게 되어 投資活動의 結果인 資本形成과 實物貯蓄은 事後的으로는 均等하게 된다는 것이다.

要컨대 資金循環表에서 銘記한 事實은 實物資本形成을 뜻하는 實物 개념의 貯蓄이나 投資의 非金融小計定은 그것이 本質에 있어 他部門과의 貨幣의 金融의 債務發生의 流通을 경유치 않은 産業의 流通의 成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아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金融計定에서의 現金이니 預金이니 또는 有價證券 등으로 나타내는 金融資產의 各 部門別 또는 部門相互間의 去來에 있어서도 그 總量이 바로 非金融計定の 具體的인 實物資本形成의 總額을 나타낸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上述한 바 國民總資本形成의 資金源泉을 經濟主體別 또는 資金形態別로 分介하여 殘高를 맞추는 일에 있어서도 같은 論理를 적용할 수 있다. 즉 資本形成의 資金源泉을 殘高上으로 恒等게 하는 것은 投資의 源泉을 資金形態 또는 主體別로 그 期에 移動된 資產 및 負債增加額을 加減概念에서 計數整理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 것인가? 흐름의 概念으로서 포착되는 國民所得의 產出過程에서 그 支出面에서의 分介의 하나인 投資=貯蓄(資本形成)도 貨幣의 金融의 流通에서 볼 때에는 이것 역시 흐름 形態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資本形成이 1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實物資本額을 齎來하기 위한 貨幣의 金融의 流通은 그 몇배의 去來量을 나타내게 되는데 實物資本 K 와 GNP인 Y 의 較量에서 資本係數 K/Y 를 算出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資本形成額 ΔK 와 資金의 總循環額을 M 으로 놓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貨幣資本과 實物投資의 較量值인 $M/\Delta K$ 를 誘導해 내는데 困難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概念을 現實의으로 別로 쓰지 않고 그럴 必要나 그것에서 導出되는 法則性 같은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捨象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굳이 限界資本係數와 같은 概念으로 投資=實物資本이 形成과 그것을 齎來하기까지의 모든 資源의 動員額-總貯蓄의 實額과를 較量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純投資 ΔK 를 一分介로하여 集計되는 國民所得 Y 와 動員된 實物資本의 歷史的인 總量 K 의 較量에서 얻는 資本係數一般의 概念을 援用하는 일이 빠를 것이다.

이 말을 다른 角度에서 數衍한다면 今期の 純投資인 資本形成과 그 源泉의 較量-資本·

10) 鎌倉 昇編 經濟成長と金融, 1970, pp. 58-62.

投資比率는 資本係數 一般 또는 產業別 平均資本係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追加하여 여기서 밝힐 點은 資本係數의 現實的인 正確한 導出도 어려울거니와 貨幣의 所得速度(Income Velocity of Money)에서 포착되는 바 所得產出과 所要貨幣나 資金의 一定期間中の 流通總量을 較量하는 일이란 正鵠을 얻기가 事實上 어려운 것이다 이는 특히 市場經濟가 充分히 발달하지 못한 이룰테면 物物交換이나 無償 서비스가 散見되는 地域을 생각해 볼때 더욱 切實히 느껴지는 것이라 하겠다.

4. 結 言

以上에서 우리는 國民經濟의 擴大再生을 가져오는 鍵鑰이 實物資本의 形成에 있고 實物資本아닌 金融資產 一般은 어디까지나 國民所得을 낳는데 援用되는 資金으로서 기능을 다 한다는 論理를 보아 왔다. 金融源產 一般을 或은 通俗的으로 일컬어 貨幣資本이라 命名하는 때는 그 나름으로 一理는 있다. 窮極에 가서 모든 金融資產은 貨幣(돈)의 需要形態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只今 貨幣資本이 投資로 轉換되는 主體나 機關別로 하여 이것을 또 別名한다고 하면 于先 金融機構 側에서 보면 金融資本, 信用資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證券資本, 產業資本 또는 商業資本 심지어는 企業資本, 獨占資本 등등으로 貨幣資本을 別稱하는 것도 이러한 窮極的으로 貨幣로 還元되는 金融資產의 歸屬에 따라 그 名稱이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貨幣의 金融的(financial)이 아닌 調達の 경우 즉 法人企業을 例로하여 企業自體가 갖는 金融資產을 그대로 自己 目的下에 投資化 하는 경우 그러한 貨幣는 바로 產業的인 流通外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點을 생각할 때 여기서는 벌써 그러한 金融資產을 企業 自體의 貯蓄으로서 資金循環表上的 非金融計定으로 處理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企業貯蓄에 對應하는 投資에는 그 間에 利子の 發生이 없는 直接的인 實物調達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利子の 發生與否가 第一로 實物資本과 上述한 바 貨幣資本의 區分을 짓는 一基準이 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實物資本 즉 國民所得의 實量을 左右하는 實財를 眞正한 意味의 資本으로 보아온 우리의 所見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摘記될 수 있을 것이다.

1) 國民所得의 實量을 左右하며 具體的 實物的으로 生産에 參加한 모든 國民들에게 財貨의 享有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資本이며 그것은 貨幣的 概念아닌 財貨 하나하나를 集大成한 實物概念의 것이다. 따라서 貨幣의 概念의 모든 資金내지 資產은 비록 貯蓄의 內容을 이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投資와의 非對稱性(asymmetry) 때문에 그것이 投資化되지 않는 限 우리의 資本概念에서는 除外되어야 한다. 元來 投資(invest)라는 말은 財貨의 生産過程에의 適用(applying in the process of production)이라는 뜻이 있는 것인바¹¹⁾ 貯蓄이 貨幣의 概念을 떠나 機械나 施設 등등의 實物的인 概念으로 轉移하지 않고서는 實量으로서의 國民所得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다음 우리의 資本概念은 fundist들이 말하는 單純한 會計學的分介上的 貸邊總量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資本의 機能的인 區分으로서 어디까지나 投資化된 實財를 가르키는 것이며 國民貸借對照表에서도 借邊인 實物資產側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國民經濟가 期初에 前期

11) F. v. Hayek, Ibid p. 66.

의 資本形成額=投資實財를 갖고 그것을 미친으로 今期의 所得을 낳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投資實財는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期初에는 貸邊에 國民資源으로 看做 分介되는 것이다.

3) 끝으로 이러한 概念의 實物資本이기 때문에 期初의 定額에서 生産過程에 投入되어 期末現在로 果實을 낳는 資本形成額은 그 自體가 바로 國民經濟活動이 齊來한 資本利潤이요 蓄積額이 되는 것이다. 利子나 配當을 낳는 貨幣資本 또 國民貯蓄으로서의 金融資產 一般의 기능하고 區別되는 所以가 이에 있다. 따라서 國民資本蓄積을 云謂하는 데는 자연히 國民의 金融資產의 蓄積과는 다른 角度에서 論理가 展開되어야 하며 資本의 限界効率이 資本利子和 較量되면서도 資本利潤의 追究方向과 같은 平面에서 取扱되는 緣由도 이에서 짐작되어야 할 것이다¹²⁾.

12) D. Hamberg, Ibid, pp. 175—176.